

## 말라기 1:1-5

###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버틴 게 은혜지.”

아니면, 이런 속앓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아, 참 답답한 상황이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라기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앞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세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라.”  
즉,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다릅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성전도 지었고, 예배도 다시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저희가 스미스채플에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세워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겠지요.  
여러분들도 간절한 바램과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첫 예배 때의 감격이 없지?”  
“왜 기쁨이 줄어든 것 같지?”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 믿음은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그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이혼이 난무합니다.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을 무시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해 무책임합니다.

사회에 부정의가 속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 질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면,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영적 쇠퇴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의외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는데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지,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꺼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꽃길만 걷고,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집 수리를 끝냈는데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아직도 물이 새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은 끝냈지만 여전히 외세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들이 다시 지은 성전은 예전의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초라했으며, 삶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실망스러울수록, 냉소는 자라날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지쳤고,

신실하려고 했는데 몸과 마음이 무너질때가 생기지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올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올라올때가 있을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아직 응답이 없죠?”

겉으로는 괜찮은척, 거룩한 척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끕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찾을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 혼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수 있니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질문에 회피하지도 않으십니다.

대답을 하시죠.

하지만 설명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뜬금없는거 같지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야곱이 잘나서 그를 사랑한게 아니다.  
출신 배경 똑같고, 야곱이 에서보다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나를 더  
애타게 찾아서 그를 택한게 아니다.  
그냥 내가 그를 택하고 사랑한거야.

그 말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아직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통한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는 삶이 쉽고 모든 일이  
원하는대로 술술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여기 이 자리에 있지요. 여기 있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피난처로 삼고, 언제든지 그분께로 달려가 울 수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의 드라마**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무작위로 모인 구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써 내려가시는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포로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대서사에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이야기의 일부다.” 내가 써내려가는 온 인류역사를 망라하는 이야기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 장 8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쉬운 삶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크고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정 믿는다면, 행여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써 내려 가시는 이야기 한 복판 속에 있다는 것이며,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한 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을 뛰어다니던 세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한 아이가 그만 무언가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렴.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세 번 말하고 오너라.”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쉽네.’ 소년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여전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년은 이 상황이 조금 우습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 번째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의 마음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의 무게를 느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세상’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기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친 백성들을 다시 ‘십자가’ 진리 앞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아냐구요?**  
 지금 내 삶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들고온 냉소, 의심, 두려움, 모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그 마음에 응답하시며 다시

이렇게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 종교가 아니라, ‘관계’로 돌아오라.

**이것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다 완벽하게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한 해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에서인가, 아니면 습관적인가?
-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대답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2026년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묵상 나눔 질문

1. 나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확증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2. 2026년, 예배와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습관과 새해에 끝까지 불들어야 할 영적 결단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